

교회소식

1. Covid 19 Level 3 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2.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 성경 읽기 이번 주 범위는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입니다. 한절 한절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평안과 위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범위: 로마서 1장-16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5장 (매일 3장)

3.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가 매일 저녁 9시 각 가정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공동 제장들은 매일 연락하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Covid 19 단계가 속히 내려가 St Andrew's 교회와 만남을 가지도록.
- 하나님께서 상황과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4. 각 선교회원들은 서로 서로 연락하여 안부와 격려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 임병숙 권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 마치고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깨어나시고 쾌유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6. 주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 방을 통해 전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예배 순서 주보 참조).

7. 온라인 헌금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October

교회사역일지

10월 17일(주일)
인도자 성경 공부
10월 27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10월 31일(주일)
감사 주일

기도순서

10월 24일 (주일)
현석호 장로
10월 27일 (수)
박진영 집사
10월 17일 (주일)
박제용 장로
10월 20일 (수)
박후임 권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박제용, 김영옥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42호 2021.10.17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Praise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시 95:1-3	인도자
찬송	Hymn	29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Prayer of Repentanc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Hymn	337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장경희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시편 119:71	인도자
찬양대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Sermon	왜 고난이 유익인가	이태한 목사
찬송	Hymn	주가 보이신 생명의길	다함께
헌금기도	Offering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Closing Scripture		다함께
응답송	Closing Hymn	171장 (1절)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바누아투 정성욱 김금숙 선교사 소식입니다.

동역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바누아투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월 초에는 몇몇 교회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요청으로 비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수의 부자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세탁기가 없기에 빨래 비누가 중요합니다. 가게에서 판매하는 빨래 비누는 세탁력도 떨어지고 금방 소비되어 버립니다. 이번에 함께한 안브림섬에서 온 소피 목사에게는 그 섬에서도 직접 비누를 만들 수 있도록 개인 실습과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서 보냈습니다. 안브림섬에서도 비누가 교회를 돕는 일에 잘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15일부터 22일에는 산토섬에 있는 탈루아신학교에 장학금 및 약품 전달과 강의차 한 주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노회와 총회로부터 지원이 전혀 없어 신학교 운영이 정말 어려웠는데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학생들에 장학금이 전달되어 전도사님들의 부담도 줄고 학교가 운영되는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루에 세 시간 발전기로 전기가 공급되는데 그 시간에 전화기 배터리와 노트북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연락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녁은 스텝과 학생들 집에 초대받아 그들의 삶을 더 이해하고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필립 목사 가정에서 제가 짜장 라면을, 전 교장 마시아 목사님과는 너구리를 끓여 대접하였습니다.

산토섬에는 저희가 사는 예파테 섬에는 없는 한국의 라면들이 중국을 통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체 신학교 식구들이 100명이 넘기에 한 끼라도 함께 식사하려고 근처 농장에서 소를 잡기로 했습니다. 이 때가 마침 올해의 속죄일(욘키푸르)기간과 겹쳤는데 소 도축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일 막세스 형제자매들과 레위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영육 간에 늘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정성욱 김금숙(주원, 예원) 드림

기도제목

1. 탈루아신학교 스텝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2. 온 가족이 영육 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주원이가 군 생활 중 주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박제란 권사
성	경	Scripture	베드로전서 1:22-25
경	봉		
독	독	Sermon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설	교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나눔란

2021년 10월 10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사도행전 16:16-26

살다 보면 선을 행하고도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갈 6:9).

1)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낭패를 당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을 고쳐준 선한 일로 인해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자기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도(16:10) 갇히게 되었습니다. 옳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게 살았지만(욘 1:1)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자신마저 병들게 되는 억울한 시련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결국 더 큰 믿음과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려 오는 불 시험을 이삼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벧전4:12). 신앙의 행위를 했으니 환난이 없는 삶을 구한다면 환난과 신앙의 행위를 교환하려는 거레에 불과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이며 친 아들이 아닌 것일(히 12:7-8)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시험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을 구분하고 같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들린 여종이 바울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했을 때(17)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18). 귀신이 말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우상 제우스에게 쓰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분별한 바울이 귀신에게 떠날 것을 명한 즉시 귀신이 떠나자 여종의 주인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고소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이 가치관은 물질의 위력 앞에 인격을 버리는 물질에 묶인 가치관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며(잠 11:28)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마 6:24). 돈이 중요할 때 진리는 침묵하기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말세의 징후들 중 하나입니다(딤후3:1-2). 우리는 신앙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구분하는 지혜로 같등 없이 살아야 합니다.

3) 불합리하게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한밤중인 상황에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았기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합리한 고난의 크기에 압도되기보다는 고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한밤중은 고요하기에 죄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욘 35:10). 인생의 한밤중이라도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고 찬송하며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시 57:7-8).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죄수들의 모든 묶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25-26). 이것이 불합리한 현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기도는 결박을 푸는 능력이며 찬송은 불합리한 상황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가장 불합리한 현실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마 27:38). 불합리한 현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그분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고 찬송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원망과 낙심보다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비대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2.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역사하시도록.